



연등축제 화보 LotusLanternFestival

4월 28~30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열린 불기 2550년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는 수많은 국내외 인파가 몰리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4월 30일 서울 동대문 야구장과 종로 조계사 일대에서 펼쳐진 연등축제에는 연인원 30여만명이 몰려 신명나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올해는 가족단위의 참가객과 외국관광객들이 많아 연등축제는 단순히 불교 행사를 넘어 명실공히 국민적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종로 우정국 앞 불교문화마당에서는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 등 10여개국 동남아 외국인 불자들이 자국의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불교문화체험과 음식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우리도 부처님같이-어린이마음, 부처님마음'이란 주제에 맞춰 어린이 장엄물을 거리 행렬 선두에 배치해 부모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국적과 인종을 막론하고 현재 같고도 폭력으로 얼룩진 시방세계가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모두 해소돼 불국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한마음선원이 새롭게 선보인 화려한 용등, 개와 닭이 함께 장엄된 올해는 상서로운 용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지관 스님(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들이 연등을 들고 제등행진에 동참했다.



북지마당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가운데)과 조계종 중앙총회회장 법등 스님(맨 오른쪽)이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했다.

거리마다 연등 물결



국제불교마당에서 연등등을 만들어 즐거워하는 외국인 불자들.

장엄물에 탄성 또 탄성

○...부처님의 광명을 서울 종로의 밤거리 에 아름답게 수놓은 것은 단연 봉축 장엄물, 법당과 호법신장 등 도량 전체를 조형화해 제등행렬에 나서는가 하면, 오토바이를 탄 저팔계와 손오공이 등장하는 등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능인선원이 마련한 부처님과 탱화를 배경으로 만든 대형 법당은 장엄물은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여기에 30여 개로 구성된 호법신장 장엄물이 길게 늘어서 법당 조형물을 뒤따라, 마치 승천한 군대가 개천문에 들어오는 듯 했다.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

○...세계불교가 다 모였습니다." "태국, 네팔, 티베트, 인도, 대만, 스리랑카, 캄보디아..."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이 열린 서울 종로 우정국로 일대는 불교권 국가 7개국이 나라별 전통 불교문화를 선보였다. 이들 나라는 전통 의상과 음식 소

개, 민속 행사 체험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우정국로 찾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이 가운데 압권은 스리랑카 불교 코너. 전통 의상을 입은 불자가 직접 스리랑카 불교문화를 소개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e불교 뗏다' 관심 집중

○...불교문화마당에 'e불교'가 뗏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3D 입체 사진으로 사찰의 사계를 감상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한 것. 또 컴퓨터 게임인 '부처님 공덕쌓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구름을 탄 동자승이 중앙에 올 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떨어지고, 구름 아래 꽃이 피어있는 단에 공덕들을 쌓는 내용. 이 외에도 원력카드를 작성해 나무에 달면 추위를 통해 마곡사 부근에 지어질 전통불교문화사업지원센터 기와불사에 이들을 넣어주는 행사도 마련했다.



진각종이 선보인 '날아라 슈퍼보드(어린이 만화)' 장엄등은 이번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이 한날이라는 것을 상기 시키며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다.

연등축제 전과정 화보 · 동영상

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밀리언셀러 《화》의 저자 틱낫한 스님의 2006년 신작



기도 prayer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당신이 우주 안의 모든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라

몸이 아플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삶이 힘들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소망한다.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신에게 원원하게 된다. 이것을 '기도'라고 부른다. 침묵을 통해서든, 찬송가나 명상을 통해서든, 그것이 진정한 기도일 때 우리는 자신보다 위대한 어떤 존재와 만나게 된다. 이 책은 종교와 종파,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을 넘어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되짚어 준다. 그리고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탁난한 지음 | 김은희 옮김 | 9,000원

화 100만 독자가 선택한 화제의 베스트셀러
세월이 흐를수록, 화가 날 때마다 다시 꺼내 읽게 되는 책!
탁난한 지음 | 최수진 옮김 | 8,500원

힘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의 발견
2013년 한국 방문 기념으로 세계 최초 출간된 화제의 책
탁난한 지음 | 전두기 옮김 | 8,900원

틱낫한 스님이 읽어주는 법화경
법화경 한 구절이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한다
틱낫한 지음 | 최영희 옮김 | 10,300원



활짝 핀 천진불심

LotusLanternFestival 연등축제 화보

어린이 체험 행사 다양

○...불기 2550년 불교문화마당은 '동심(童心) 한마당'이었다. 어린이날과 겹친 이번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은 어린이 불자의 손에 들린 색색의 풍선으로 수놓아졌다. 부모의 손을 잡고 참가한 어린이들은 연등 만들기, 부처님 그리기, 종이접기, 화전 만들기 등 다양한 참가 프로그램을 즐겼고 아이와 함께 공기놀이나 고무줄놀이를 즐기는 부모들도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웃음꽃이 만발했다.

'월드컵 축구공등' 눈길

○...서울 봉은사는 이번 제등행진에서 2006년 독일 월드컵의 승리를 기원하는 불축 축구공등을 선보여 인기를 모았다. 월드컵이 두달도 채 남지 않았기에 제등행진을 관람하던 시민들은 '월드컵 우승'을 외치며 축구공등에 열광했다. 동대문운동장을 출발한 제등행렬, 발우등, 직신등, 소고등, 목탁등, 공작등, 닭등,

용등, 연꽃등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한 전통등을 집합 시민들은 엄청난 규모와 다양한 종류에 놀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종로거리를 찾은 시민들은 수군수군, "이런 등도 있었어요?"

휠체어 타고 제등행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은 장애등을 앞세우고 휠체어에 탄 장애인들과 함께 선두그룹 제등행진에 나서 온 불자들이 하나 되는 연등축제의 뜻을 더욱 드높였다.

재단은 그간 제등행진에 참가해왔으나 장애등을 선보인 것은 올해 처음 있는 일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선두에는 상임이사 지현 스님이 귀여운 두 동자승의 손을 잡고 등장해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재단의 마스코트로 인기를 독차지한 두 동자승은 각각 재단 산하 효지어린이집과 신당1동어린이집의 김진일(5), 김동일(6) 어린이.

특별취재반·사진=고영배·박재원 기자



우정국로 일대에서 펼쳐진 불교문화마당에서 불화그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어린이들.



신나는 '대중율동'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어른들 사이로, 율동단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부처님오신날의 공식표어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처럼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아름답다.



불교문화마당에서 한 외국인 어린이가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육의식을 체험하고 있다.

지역 연등축제는



부산, 동자승 홍보대사 '짱'

○...4월 29일 부산 남포동에 나타난 15명의 동자승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부산 내원정사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마련한 자비의 탁발. 동자승을 휴대폰카메라로 찍는 시민들이 많아 부처님오신날 홍보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광주, 축제 참가자에 선물

○...4월 28일 광주광역시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빛고을 연등 축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났다. 특히 이번 대동한마당에는 불자 기업 '황강웰'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친환경 시장주머니를 선물로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대구, 도심 한복판 무대화

○...대구 연등축제 하이라이트는 시내 중심 반월당 네거리와 남문시장 네거리를 통제한 후 펼쳐진 제등행진 회향한마당. 대구 도심 한복판 도모에 무대가 마련된 것은 이례적인 일. 처음으로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 것이다. 두류공원에서부터 출발한 불자들이 등을 들고 2.4km의 구간을 걸어서 들어선 시민들의 환호로 회향한마당 열기가 더했다.



이날 어린이 율동단과 연희단은 단연 불축 어울림마당의 주인공이었다.

연등축제 전과정 화보·동영상

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농으면 자유요, 집착함은 노예이다. 왜 노예로 살려 하는가!”

禪 침묵의 천둥소리

김시행 저음

대행 스님 大行

주인공, 그대는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깨우치는 대행스님의 큰 말씀

1926년 이 땅에 몸뚱이 깨어난 스님은 어느 날 갑자기 가슴 속에서 '죽어야 나는 보리밭'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피두 삼아 참구하던 중 '참' 자기의 주인공과 내가 참이 아니라는 것에 눈뜨다. 10여 년간의 산승 수행을 통해 궁극의 도리를 깨친 스님은 중생 고통에 뜻을 두어 1972년 한다음김현을 세웠으며, 2006년 현재 15개 국내 지원, 미국과 독일 등 7개 해외 지원을 품으로 삼아 '자기 안의 부처를 깨달아 참자유인이 되는 길을 가리키'고 있다.

참살 없는 관용에서 살 것인가, 이것만 대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하는 대행스님의 '참마음법'이 마침내 우리에게 자유의 열쇠를 쥐어 준다!

● 권 천년의 어둠도 한 줄기 빛에 녹아든다
● 권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 가격 10,300원 |

김시행 저음
www.gimshyang.com